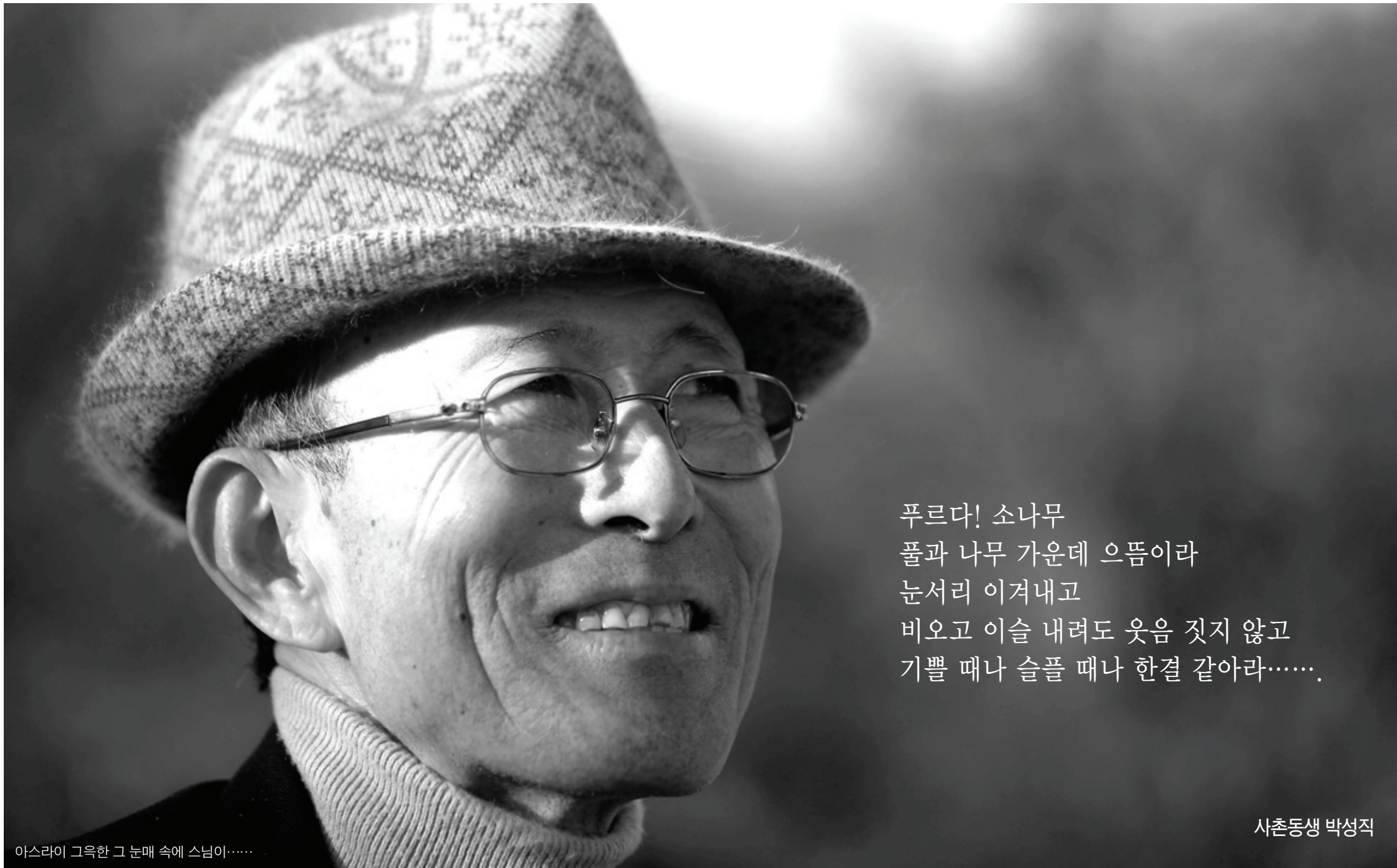


# 좋은 일 생각하고 말하면 그 날은 좋은 날



아스라이 그윽한 그 눈매 속에 스님이.....

사촌동생 박성직

푸르다! 소나무  
풀과 나무 가운데 으뜸이라  
눈서리 이겨내고  
비오고 이슬 내려도 웃음 짓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 같아라.....

법정 스님을 떠올리면 늘 사명 스님 청송사靑松 辭가 절로 입 안에 감돌았는데, 경인년庚寅年이 저 무는 12월, 법정 스님 사촌동생 수광壽光 박성직 (71)선생을 만나면서 청송사가 떠올랐다. 스님이 겨울 산 위에 우뚝 선 소나무라면 수광 선생은 달빛을 거르는 소나무처럼 은근하다.

“스님이 살아 계실 때는 웬만한 분들은 내가 사촌간 인줄도 몰랐을 거예요. 길상사 법회 때 오가는 길목에서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뵙고, 말씀도 길에서 몇 마디 나누곤 했으니까요.” 법정 스님을 가까이 했던 이들은 스님이 길상사 나들이하는 날이면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다가 스님이 오시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곤 했지만, 수광 선생은 말쑥하게 서서 조용히 법문만 듣고 갔다. “잘 아시잖아요. 인척들한테는 엄하고 소원하셨어요. 어쩔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어르신 처지를 알기 때문에. 애써 거리를 뒀어요.”

그렇게 면발치를 지켰던 수광 선생은 스물일곱 살에 결혼을 하고부터 쪽 법정 스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죠. 마침 12월 25일 날이 제사예요. 어느새 24주기네요. 스님이 네 살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죠. 할머니는 그런 손주가 몹시 안쓰러워서 각별히 사랑하셨지요. 스님하고 저는 여덟 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한 집에서, 한 형제나 진배없었죠. 큰어머니는 한 동네에서 집 한 채 얻어가지고 따로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두세 살 적부터 큰어머니 댁에 가서 자고 놀고 그랬어요.” 할머니를 형에게 빼앗긴 보상 심리에서였을까? 수광 선생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보다 큰어머니를 유난히 더 따랐다. “우리 큰어머니가 진도 분이세요. 육자배기를 아주 곱죽하게 잘하셨어요. 큰어머니가 마루턱에 걸터앉아 육자배기를 한가락 구성지게 뽑아 넘기시면, 동네 어른들이 넋을 놓고 앉아서 듣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노래를 못 부르게 쫓아다니면서 마구 때를 썼어요. 나랑 놀아달라고.”

모시고 살았던 이십 여 년 세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법정 스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아주 쾌활하시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으세요. 여담인데요. 시골에서는 농사지으려면 사람들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큰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와요. 뭐랄까? 뒤로 보리쌀도 한 뭇박 더 준 다든지... 온화하고 불임성이 좋으세요. 친구들을 좋아하시고 시골 분담지 않게 유머도 넘치시고 인척이 있으셨어요. 대인 관계는 스님이 어머니를 빼어 닮지 않았나 싶어요.” 수십여 년 모시고 살다보면 이모저모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텐데? “큰어머니 성격이 워낙 온화해서 모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남하고 다투는 일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역정을 내기도

하고 남 얘기도 가끔 하고 그러셨는데 큰어머니는 답한데 싶은 소리를 못하세요. 그런 성격이시니 아무래도 우리네보다 큰어머니가 좀 불편하셨을 테지요. 그래서 그런지 가슴앓이. 큰어머니는 스님 출가 전부터 속앓이를 하셨어요. 스님 네 살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잖아요. 더구나 해방 전후 모든 게 다 궁핍하고 모자라서 힘들 때였으니...”

### - 진 빛이 한량이 없구나

수광 선생이 출가한 스님을 처음 찾아뵈었을 때가 해인사 시절이었다. “한 번 다녀가라고 그러셨어요. 휴가 갔다가 귀대하면서 들렀습니다. 해인사에서 하룻밤 지고 왔어요. 그때는 스님도 출가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나도 군대 가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어요. 스님은 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스님 책을 그때까지도 보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책을 우편으로 부쳐드리고 그랬지요.” 스님 모습을 보면서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어요. 나까지 출가해 버리면... 하하. 출가하신 뒤 편지에도 쓰셨습니다. 네가 기둥이니가 우리 집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우리 클 때만해도 장남이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다 그랬어요. 스님이 영특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무표정한 직업인이 되는 것이다. 해서 나는 초연한 修道僧(수도승)이기보다는, 自然인(자연인)으로서 진리를 모색하는 哲學徒(철학도)가 되고 싶을 뿐이다. 불교 가운데서도 종교측면은 나를 질식케 하지만, 哲學(철학) 영역만은 나를 언제까지 질게 하고 있지 -.

물론 社會人(사회인)에겐 살아가는데 직업이 필요할 수밖에. 하지만 인간 본래 良心(양심)이라든가 의지를 잃어버리고까지 거기에 얽매일 건 없을 줄 안다. 어쩌면 이 말은 빵의 존엄성을 모르는 철부지 말일지도 모른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生存(생존)만으론 살고 있는 보람이 없어. 즐거운 생활이, 창조적인 생활이 있어야 해..... 아 뒤

1960. 10. 21  
山僧 法頂(산승 법정) 합장

성직에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電報(전보)를 오늘 오후에야 받아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요즘 내 건강과 주위 여러 가지 형편이 나를 不自由(부자유)하게 만들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은혜로운 분은 작은 아버지시다. 나를 教育(교육)시켜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 때문이다.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法堂(법당)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 이일저일 생각하니 내가 진 빛이 한량이 없구나. 不孝(불효)라 하기에 그지없고 -..... 出家 外人(출가 외인)이라 드니, 가는 길이 서로 달라 어찌지 못함이 안타깝고 죄스러울 뿐이다. 어머니를 잘 위로해드려라.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 명복을 佛前(불전)에 빌기로 作心(작심)했다. 四十九日(사십구일) 동안 佛敎儀式(불교의식)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 일이다. 가신 분 은혜에 報答(보답)하는 내 도리로 정성인 것이다..... 70년 11월 27일 밤  
法頂 合掌(법정 합장)

불교는 언제부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도 좀 다녔어요. 스님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교회를 좋아했지 않았나?’ 제대로 불교를 한 건 큰어머니 돌아가실 무렵이니까 25~26년 정도? 우리 집사람은 해남 대흥사 바로 아래서 살아서 옛날부터 절에 다녔어요. 우리출판사 아십니까? 발행인이 비구니 스님인데 집 사람과 사촌간이예요. 저하고 법정 스님도 사촌간이니 우리 내외가 다 불연佛緣이 깊네요.”

법정 스님도 학창시절 절에 가셨을 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연이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듯싶다. “86년도 여름에 스님이 초청해 주셔서 불일암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정식으로 계도 받았어요. 계 불명이 수광壽光입니다. 목숨 훑자 빛 가져. 우리 집사람은 공덕림功德林. 그전까지는 가짜 불자였어요.” ‘공덕

##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여래원 원장 해 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4817-0550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해성불원(海戒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은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야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인 여려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할 자세한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	--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